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캄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지연 안나레지나 917. 282. 1662

제1독서 | 이사 42,1-4.6-7

화답송 |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러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러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제2독서 | 사도 10,34-3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3,13-17

영성체송 |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성가 | 입당 1
영성체 165(164)

예물준비 236(220)
파견 29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이선민 마리아
- 한주천 모니카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이기연
- 이정진 안토니오

생미사 지향

- 이장학 토마스 건강 회복
- 서지석 야고보 생일 축하
- 유서현 다니엘 가족
- 유다솜 소피아 가족
- 윤숙경 마리아의 빠른 회복
- 성소후원회 회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 이로진 요한 영육 건강
- 김재연 스테파노, 박효순 마틸다
- 조명연 도민고 영육간에 건강 위하여
- 조후연 야고버 신부님 축복
- 김민혜 클라라
- 이영애 레지나 생신 축하

| 날짜 | 해설 | 1독서 | 2독서 | 보편지향 | 성체 분배 | 복사 |
|--------|-----|-----|-----|------|-------------|---------|
| 1월 11일 | 전푸름 | 이태주 | 민재인 | 민재인 | 이영혜 백이백 이정현 | 어린이 복사 |
| 1월 18일 | 정유진 | 강호영 | 민덕미 | 민덕미 | 김종선 진서윤 정다경 | 이예진 한서희 |

| 미사, 성사, 교리 안내 | |
|---------------|---------------------------|
| 주일 미사 | 오전 09:15 윗 성당 |
| 고해 성사 |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
| 혼인 성사 |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
| 유아 세례 |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
| 봉 성 체 |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
| 예비신자 교리 |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
| 견진 교리 |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646. 685. 7788 봉사자 원혜미 엘리사벳

2026년 '일년일독 성경통독' 시작

2026년 새 성경통독표를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표에 제시된 순서대로 날마다 정해진 분량을 읽으시면 됩니다. 와 닿는 말씀을 작은 쪽지나 공책에 써서 기억한다면 더욱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연령회 일례회

오늘 미사 후 연령회에서 이선민(마리아) 자매님을 위한 연도 봉헌이 있습니다.

시간: 11:00 AM. 장소: 아래성당

연도신청: 646. 369. 3666(연령회장 김종선 비비안나)

* 공지: 2026년 교육분과 단체장

◆ 학부모회

회장 김혜미 레오나
부회장 허철범 베드로
총무 서지석 야고보

◆ 성가정회

회장 방상욱 베드로 이하나 세실리아
부회장 이영주 비오 황지윤 아녜스

◆ 교사회

교감 정승연 플로라
총무 송지연 프란체스카

2026년 달력 배부

본당 달력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코리안 오피스에 와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2026년 주일학교 개강

2026년 주일학교가 1월 18일에 시작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부활 세례반/견진성사반 시작

2026년 세례반/견진반을 시작합니다.

교육기간: 1) 세례반: 1/4-3/29 2) 견진준비반: 2/22-3/29

시간/장소: 1) 세례반: 3층 컨퍼런스룸, 1:00 PM~

2) 견진반: 추후 공지

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2026년 미 동북부 올뜨레야 신년하례식

날짜/시간: 1/11일(주일) 4:00PM -8:00PM

장소: 마돈나 성당

SNS성경공동통독(마르코/마태오/루카) 후속모임

2025년 대림시기 동안 함께 했던 공관복음 성경통독의 소감을 나누고 성경읽기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날짜/시간: 1/24(토), 1:00 PM-2:30 PM

장소: 프란시스룸 (진행: Sr. 마리루시)

2026 전 신자 SNS 성경공동통독(요한/사도행전)

2025년 대림시기 <공관복음(마르코, 마태오, 루카)> 통독에 이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공동통독을 시작합니다. 주님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영적 준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상: 전 신자(2/8-3/28)

방법: 각자 매일 1장씩 정해진 분량 읽기, 언제든지 참여 가능(늦게 참여하신 분들은 진도가 나간 분량을 개인적으로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

참여방법:

1. QR 스캔 또는

<https://open.kakao.com/o/g2b2QQUh>

2. 코드 10001 입력

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4월에 성경통독을 함께 마무리하는 후속모임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 3,17)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식 기도문 >

젊은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 자신을 당신께 맡겨 드리오니,
온 세상 젊은이들이 교회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진교와 일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미 그리고 영원히’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님,
“용기를 내어라” 하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온 세상 모든 이가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가 세상에 대한 승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사랑의 불꽃이신 성령님,
당신의 놀라운 손길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으니,
한국 순교 성인들의 믿음이 저희 가슴에도 타올라
평화와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세계청년대회의 순례 여정을 통해
저희 모두가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찾으며,
모든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걷는
시노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 자비와 평화의 모후이시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후보성인들이여,
- 모든 젊은이들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 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제이더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LIQUOR
원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야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운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happyhomecare.rn@gmail.com

I:1 맞춤 방문 간호
(투약·검진·돌봄)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사랑하는 까닭



노동준 안토니오 신부 || 상계동성당 부주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안(紅顔)만을 사랑하지마는 당신은 나의 백발(白髮)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마는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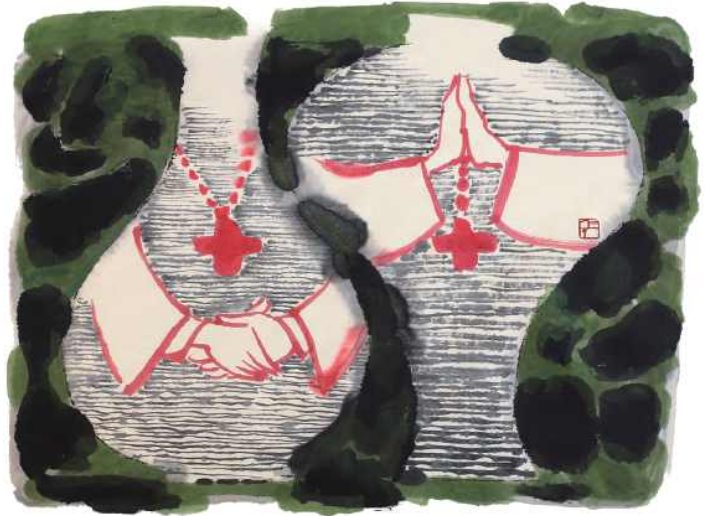
한용운 시인의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아름다울 때, 즐거울 때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겠지요.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슬퍼하고 아파할 때도 서로를 아껴주고 좋아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성당에 잘 나올 때, 봉사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냉담하고 방황하며 죄를 지을 때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례는 오늘날처럼 이마에 물을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온몸을 강물에 담그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요르단 강물은 맑고 깨끗한 물이 아니라 진흙으로 가득한 흙탕물이었으니,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성화가 그리듯이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라기보다, 조금은 형클어지고 지저분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하느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 3,17)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의 아름답고 멋진 모습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물에서 방금 나와 머리가 엉망이 되었을 때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실 때도 하느님께서서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내 마음에 드는 자녀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은 우리가 기부를 많이 해서,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꾸며서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걸음을 바꾸어주십니다. 탕자의 돌아움을 반기시며, 회개하는 죄인 한 명에 기뻐하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거룩할 때나 비루할 때나, 홍안일 때나 백발일 때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도 하느님처럼 주변 사람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성할 때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림해설

세례의 추억 | 아래가 넓은 호리병도, 위가 넓은 매병도, 긴긴날 당신에게 길들어 같은 문양이 되었습니다. 알고 믿진 못했어도, 믿으며 알아간 순수함을 돌아보며... 사람을 사랑 담는 그릇으로 바꾸어 놓았던 세례수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었고 들리지 않던 것을 들었으며, 새로운 꿈도 꾸었음을 기억해 냅니다. 이 따뜻함으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나를 조배합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